

의병길 함께 걸으며 역사 되짚어

무주군 초·중·고등학생 등 1백여명 참여 '제9회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 성료

제9회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가 지난 3일 무주군 설천면 라제동분교와 구천동 계곡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준다는 취지에서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문화원이 주관한 것으로 확인됨.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호 도의원과 무주문화원 맹갑상 원장을 비롯한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 1백여 명이 함께 했다.



제9회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가 지난 3일 무주군 설천면 라제동분교와 구천동 계곡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뿌리를 바로 알고 역사를 아로새겨야 미래도 있는 것"이라며 "올바른 이후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의병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이 시간이 구국항쟁의 역사를 되짚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라제동분교 강무경 의병장상 앞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무주군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구천동 어사길로 이동, 구월담을 거쳐 문태사의 의병대장 순국비까지 4km를 걸었다.

강무경 의병장은 무주 설천면 소천리 출신으로 전남권에서 맹활약하다 1909년 일제에 체포되어 순국하였으며, 부인인 양방매 여사는 구한말 최초의 여성의병으로 남편인 강무경을 따라 항일전에 참가해 유격전을 전개

했다. 문태사의 의병대장은 영남, 호남 호서 지역 일대에서 활약한 의병장으로 무주 덕유산을 근거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1913년 2월 4일 옥중에서 자결 순국했다.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에 참여했던 한 학생들은 "덕유산 일대가 구국 항일의병들의 주 활동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고장 무주가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졌다"라며 "그분들이 의병활동을 통해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장애인태권도 선수들, 무주서 실력 겨뤄

KPTA장애인태권도대회 성료

2023 KPTA장애인태권도대회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무주군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2023 KPTA장애인태권도대회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무주군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주관으로 무주군, 전라북도장애인태권도협회 후원한 것으로, 선수 47명과 심판 등 270여 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3일부터 겨루기(정자개인·단체전 / 지체-개인)와 품새(청자개인·복식·단체전 / 지적-개인·단체전), 격파 및 명연(지적-개인전) 등 다채롭게 치러져 관심을 모았다.

같은 날 열린 개회식에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와 오승환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위원장 등 비롯한 내빈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행사와 선수·심판 선서, 신한국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 발전은 물론, 대회 개최와 진행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국장애인태권도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대회장인데 의미가 있다"

라며 "오직 태권도로 편견의 장벽을 허물고 태권도인으로서 서로를 북돋워 태권도 중추국을 빛낼 세계적인 장애인태권도선수가 태권도성지 무주에서 배출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이자 평화의 사절을 양성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무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마중을 모아주길 바란다"라며 "무주군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와 장애인태권도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던 만큼 여러분에 관련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7개소 현장 합동점검

아동 복지서비스 향상 위해

장수군은 오는 9일까지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해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합동점검은 3년마다 이뤄지는 평가로 운영지원 2명, 지역아동센터 전담직원 1명, 평가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반이 함께 실시한다.



1318회피죤다담돌, 대성 번암, 한우리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해서는 합동평가반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장수, 다솜, 산서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점검사항으로는 법정종사자의 4대 보형 납입여부, 아동출석관리, 회계관리 운영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내용을 전파하는

장수군,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장수군어린이집연합회(회장 정지영)는 지난 1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장수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주)한국인재경영교육원 강은미 대표를 초청해 '일과 삶의 조화와 즐거운 조직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보육교직원, 학부모와 아이들 간의 신뢰를 높이고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실천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해 놀랐다"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돼 어린이집 실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부 하고 깜짝 선물도 받고’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채 감사이벤트 당첨자 2차 발표

무주군이 지난 3월에 이어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채 감사이벤트(이하 감사이벤트)' 2차 당첨자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감사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채 응원에 감사함을 전하고 이를 홍보의 기회로 삼아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당첨자는 스페셜번호 '1004번' 1명과 특별번호 '800번', '900번', '1000'번 3명 등 총 4명이다.

군은 스페셜번호 당첨자에게 10만원 상당의 '무주반딧불사과 분양권'을, 특별번호 당첨자 3명에게는 각각 한우겉갈비와 한우곰탕으로 구성된 무주산물꾸러미를 증정할 예정이다.

무주반딧불사과 분양권은 10월부터 진행되는 사과 따기 체험에 사용이 가능하며, 체험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보장수량(30kg)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무주산물꾸러미는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채 당첨품 중 반응이 특히 좋은 상품들로 구성을 했다.

무주군청 재무과 유영주 고향사랑기부채 담당은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채를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응모가 돼서 순번에 따라 당첨자가 정해지는 깜짝 이벤트였기 때문에 1차 때도 호응이 컸다"며 "더 알찬 당첨품과 고향

사랑기부금 활용 계획을 가지고서 성원에 보답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누적 기부금은 2억1천여만 원으로 그동안 1,066여명이 고향을 살리는 기부의 주역이 됐다.

고향사랑기부채 당첨품으로는 '반딧불이 산비탈사과'와 '벌초대행서비스' 등 총 47종을 준비했으며 최근 산골영화회제 등나무운동장 입장권, 목재문화체험장 자유이용권 등 8종을 추가해 기부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소외계층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선물할 수 있는 '포인트 기부하기' 당첨 상품도 마련해 기부로 형성된 가치가 재기부로 순환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집중채취기간 운영

진안군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을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집중채취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집중채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의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분석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했다.

사업 대상자는 6·25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범위 내의 유가족으로 제적등본 유출증 또는 전사통지서 사본, 병적증명서 중 하나를 준비하여 보건소로 방문 후 구강 내 피부 표면을 가법게 채취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주택 수 신청

제외 신청 접수

진안군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주택 수 신청 제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하는 것을 말하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화된 세율이 적용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사업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 등은 주택 수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오는 15일까지 별도의 제외 신청을 해야만 7월 정기분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신청은 7월 정기분 반영 및 내년 1월 중 경정고지·환급할 예정이다.

주택 수 신청 제외 신청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등)를 갖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탁수 신청(wetax.gol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치매안심센터 시니어클럽과 '맞손'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일 진안군치매안심센터 헤이람실에서 진안시니어클럽과 치매안심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진안시니어클럽 김원술 관장, 진안군치매안심센터 송미경 센터장을 비롯해 치매사업 관련 공무원, 진안시니어클럽 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진안시니어클럽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치매안심사업 지원을 발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진안군 실정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체결을 통해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진안시니어클럽 전 직원에게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하고 진안시니어클럽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했다.

이번에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된 시니어클럽의 전 직원은 올바른 치매 관련 정보 전달 및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치매파트너로서 활동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2일 군수실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 권익향상과 지역발전 위해 힘쓰고 있는 보훈단체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안군, 호국보훈의 달 기념 보훈단체장 초청 간담회

보훈단체 회원 건의사항 청취·보훈 정책 발전방안 논의

진안군은 지난 2일 군수실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 권익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보훈단체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보훈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임종찬 월남전참전자회 지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훈가족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진안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관내 6개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월남전참전자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대표들이 참석해 보훈단체 회원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함께 다양한 보훈 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전춘성 군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력과 소통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들이 더욱 존경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전라북도 내 최고액인 13만 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 정신 확산을 위해 초등학교

산림치유연계 통한 상생협력 주체 활동 기반 조성 도와

진안군·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진안군과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2024년 10월 국립지역권산림치유원 개원을 앞두고 주민들의 산림치유원 연계 창업·성장 능력을 향상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전개했다.



지난 2일 군에 따르면 국립지역권산림치유원 개원과 발맞춰 주민들이 상생협력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조직 법인화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진안군은 1차 멘토링을 통해 참여팀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수렴해 각 팀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2차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2차 멘토링은 참여팀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 멘토를 지정해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그 첫 걸음으로 5월 한달 간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 지원사업 참가 13팀(창업팀 8, 성장팀 5)이 참여한 가운데 멘토링 전문가가 직접 나서 각 팀의 사업장을 방문해 1차 멘토링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참여팀들이 멘토링을 통해 법인화 및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국립지역권산림치유원 준공에 앞서 산림치유와 연계할 수 있는 상생 사업추진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